

# 금융계 폭풍 '뱅크월렛카카오' 내달 초 출시

### 가상계좌에 50만원 충전...비번만 입력 최대 10만원 송금 간편 절차 오히려 보안에 독 될 수도...해킹 가능성 우려

내달 초로 예정된 모바일 송금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이 서비스가 기존의 금융 질서를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뱅크월렛카카오는 금융결제원 주도로 국민·신한·우리를 비롯한 전국 15개 은행과 카카오가 손잡고 추진하는 서비스다. 카카오는 연결 플랫폼만을 담당하고 각종 금융 관련 서비스는 모두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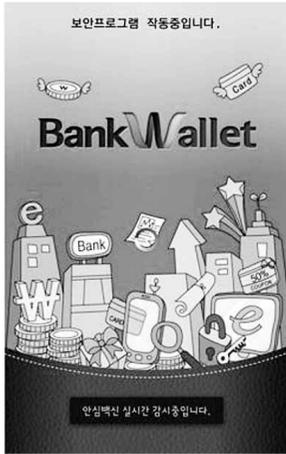
기존의 은행계좌와 연계한 뱅크월렛카카오는 가상의 전자지갑에서 최대 50만원을 '뱅크머니'로 충전해놓고 한 번에 최대 10만원을 카카오톡 친구에게 송금할 수 있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3700만명 가입자, 뱅크월렛카카오 경쟁력 ↑ =뱅크월렛카카오는 3700만명 가량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입자들이 편리하고 신

속하게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송금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부터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입력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뱅크월렛카카오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돼 1~2초면 송금 절차가 끝난다. 이전에 출시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가입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뱅크월렛카카오는 이미 구축된 방대한 모바일 멤버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

송금 수수료 또한 종래 금융권 수수료보다 한 100원 안팎이 거론되고 가입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 초기에는 무료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돈을 입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취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뱅크월렛카카오의 특징이다.



◇'정말 내 카카오톡 친구에게 돈이 갔을까?' =뱅크월렛카카오 출시에 앞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보안이다. 금융결제원과 카카오는 "세계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에 관해) 가장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휴

대전화 분실 혹은 해킹 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손쉽게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은 손쉽게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기도 하다. 보안 기술이 최고라고 해도 인간적인 실수를 노린 스미싱 혹은 피싱의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 또한 어렵다. 선납식 결제 방식인데다가 현재 한도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주기적으로 충전해야 한다는 점, 카카오톡과 별개의 앱을 깔아야 한다는 점 또한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서비스만 편리하면 빠르게 확산할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강인호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보기술·금융융합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뱅크월렛카카오가 성공해야 금융 당국도 '우리가 제대로 지원했구나, 창의적인 기업이 지금결제 서비스에서 통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뱅크월렛카카오를 확산하는 분위기를 잡아주면 앞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금주의 추천 앱

### 보안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세요

최근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 사이버 망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털과 카카오톡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이 발표되면서 대체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국내 메신저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스냅챗

◆앱 : 스냅챗  
/제작 : Snapchat, Inc.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카카오톡과 같은 사진·영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앱이다. 보낸 메시지는 확인 후 최대 10초안에 사라진다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보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만하다.

livenet.ch

◆앱 : livenet.ch  
/제작 : livenet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livenet.ch는 중립국인 스위스 메일계정이다. pop서버 등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다른 메일계정에서도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앱상으로 메일열람은 아직 지원되고 있지 않다.

Viber

◆앱 : viber  
/제작 : viber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무료통화 애플리케이션 바이버는 무료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고 서버가 외국에 있어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ESIGN ZOOZ 제공:디자인주스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 휴대전화 보조금 일제 확대...갤럭시S5 최대 22만8000원



### 고시 보조금 1주일간 유지

### 낮은 요금제...지원 규모 적어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 시행 2주차를 맞아 주요 휴대전화 기종에 대한 보조금을 일제히 확대했다.

단통법에 따라 한번 고시한 보조금은 최소 일주일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보조금을 고시한 이동통신사들은 8일부터 보조금 변경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8일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T월드 다이렉트에 갤럭시S5(SM-G900S)와 갤럭시S5 광대역 LTE-A(SM-G906S) 두 기종 모두 지원금을 13만3000원에서 18만원(LTE100 요금제 기준)으로 4만7000원 증액했다고 공시했다.

G3(LG-F400S)는 13만3000원에서 20만원, G프로2(LG-F350S)는 13만3000원에서 22만7000원으로 각각 6만7000원, 9만4000원 늘어났다.

보조금이 가장 많은 단말은 출시 1개월이 지난 G프로(LG-F240S)로, 47만6000원(기준 38만8000원)이 지원된다.

KT는 고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을 세분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도입해 높은 요금제를 쓸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일부 바꿨다.

이에 따라 완전무한 129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SM-N910)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8만2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났고, 갤럭시S5(SM-G900K)는 15만9000원에서 22만8000원, S5A(SM-G906K)는 13만6000원에서 25만1000원으로 높아졌다.

아이폰5s는 15만9000원에서 10만8000

원 추가된 26만7000원으로 변경됐으며, 구형 기종인 갤럭시노트2는 한주만에 46만9000원에서 67만3000원으로 20만4000원이 늘어났다. 베가레이서는 0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요금제는 증액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4만 보조금을 11만원으로 높였다.

이처럼 이동사 보조금이 늘어난 데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 이동사 관계자는 "이동사도 지원금을 늘렸지만 제조사쪽 장려금도 전주보다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알뜰폰 가입자수 400만명 돌파...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7.3%

### 이통 3사 대비 요금 50% 수준

저렴한 통신요금을 앞세워 2011년 7월 출범한 알뜰폰 가입자 수가 400만명을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 수가 413만8072명으로 집계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 가입자(5600만명)의 7.3%에 해당한다. SKT망을 빌려쓰는 사업자 고객이 196만8000명, KT망 185만1000명, LG유플러스망 31만8000명 등이었다.

기술방식별로는 3G 가입자가 355만9000명(86.0%)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

했고 LTE가 31만명(7.5%), 2G가 26만8000명(6.5%)이었다. 전체 이동통신에서 LTE 점유율이 6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LTE의 존재감이 미미한 편이다. 알뜰폰이 2G·3G 피쳐폰 중심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다 이통 3사가 거액의 보조금을 무기로 LTE 고객을 대거 끌어

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기존에 쓰던 단말기에 알뜰폰용 유심(USIM)만 끼워넣으면 통신비가 이통 3사 대비 50%까지 싼 LTE 정액상품이 대거 출시된 만큼 유통망만 뒷받침된다면 LTE 가입자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 텔레그램 정식 한국어 서비스 출시

### 안드로이드만 지원

사이버 검열 논란 속에 최근 국내 이용자가 급증한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7일 한국어 버전을 내놓고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텔레그램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텔레그램에 한국어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 업데이트를 마쳤으며 한국어는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만 지원된다"고 밝혔다.

현재 구글플레이 스토어에는 한글 지원이 추가된 텔레그램 1.9.2 업그레이드 버전이 올라와 있다.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이



Telegram

용자들이 사용한 텔레그램은 공식 버전이 아닌 개인 개발자가 오픈소스를 이용해 만든 변형 앱이었다.

최근 국내 이용자가 급격히 늘자 텔레그램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한글 번역 전문가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6일에는 한국어 버전 출시계획을 알리면서 한글로 된 '자주 묻는 질문'(FAQ) 웹페이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남한 노총각과 북한 꽃미녀의 예측불허 결혼일기

# 남남 북녀

애정통일!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박수홍 ♥ 박수애 양준혁 ♥ 김은아